

롯데아이행복카드 돌풍 '입소문의 힘'

출시 두 달만에 10만매 발급

롯데카드가 1월 출시한 '롯데아이행복카드'가 두 달만에 10만매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족 간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달 설 연휴 이후 신청자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육아 방송프로그램에서 인기몰이 중인 서연·서준 쌍둥이형제와 엄마 문정원 씨가 모델로 등장하는 방송CP는 물론이고 포털 사이트·신문 광고 등에서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롯데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 할인서비스에 롯데만의 유통 및 서비스 인프라를 더해 타사 아이행복카드와 차별화한 것이 강점이다. 할인한도의 상한선이 없는 등 파격적인 상품구성도 인기 비결이다. 3월말까지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최대 2만점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시행하고 있어 발급매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 결제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10%할인은 물론 쇼핑·키즈·헬스 등 육아와 직결된 최대한의 혜택을 담았다. 롯데마트(물)와 롯데홈쇼핑(아이몰), G마켓, 인터넷파크, 옥션, 베베몰, 제로투세븐닷컴은 5%, 토이저러스와 키자니아는 30%, 병의원과 약국 업종은 5%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학원과 학습지는 물론 유원지와 놀이시설 업종, 교통(시내버스·지하철·택시)도 10% 할인혜택을 받는다. 모든 통신사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매월 2000원 할인도 있다.

지난달 이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할인해주는 점도 롯데아이행복카드의 특징이다. 전월 100만원의 신판 이용실적이 있으면 당월 5만원까지 해당 업종에서 할인해주는 방식이며, 할인받은 매출은 실



▲롯데아이행복카드

설 연휴 이후 신청자수 2배 이상 급증
할인한도 상한선 無·파격적 상품구성
3월말까지 포인트 2만점 적립 이벤트

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전월 최소 이용금액은 30만원, 할인한도의 상한선은 없다.

롯데그룹의 우대 서비스로는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서비스 및 롯데월드 연간회원권 그린권 25%, 롯데백화점 5%, 롯데슈퍼 3%, 세븐일레븐 유아용품 10%할인 등이 있다. 또 롯데면세점은 5~10%할인, 롯데닷컴은 1~5%할인 및 3개월 무이자할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2~3개월 무이자할부, T.G.I. 프라이데이와 피자헛은 10%할인,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나뚜루는 1000원당 50원 할인, 롯데시네마는 1500원 할인,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등 롯데카드의 기본서비스도 빠짐없이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임신·출산·육아용품 전시회 베페 베이비페어 전일 무료입장, 유아동 전문몰인 제로투세븐닷컴(www.0to7.com) 1년 VIP서비스와 전국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지자체 문화체육시설 무료입장·할인 및 에코머니포인트 적립사용이 가능한 그린카드 서비스도 적용했다.

카드신청은 전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와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및 롯데아이행복 발급전문 상담소(1899-4282)를 통해 가능하다. 신용 및 체크카드 2종이며 연회비는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서비스에 롯데의 고객서비스까지 더해지면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아이행복카드를 시작으로 고운맘카드 등 다른 국가 바우처카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67



◀ '롯데아이행복카드'가 출시 두 달 만에 10만매를 돌파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 할인서비스에 롯데만의 유통 및 서비스 인프라를 더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연·서준 쌍둥이형제 모델. 사진제공 롯데카드

공정위, 제주항공에 위탁 수화물 파손 보상 명령

파손 무책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수령 후 곧바로 신고해야 보상 가능

제주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제주항공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위탁 수화물이 파손되더라도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관리 기간 중 발생한 위탁 수화물 손해에 대해 수화물 고유의 결함 등 일부 면책사유가 아니라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화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한 파손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공항에서 수화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화물은 항공사의 지배 및 관리 아래 놓이게 되므로 제주항공의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수화물 고유의 결함과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 등을 제외한 이용객들의 수화물 파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다만, 위탁 수화물 손해는 공항에서 수령 후 곧바로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LG전자가 브라질에서 열린 2015년 신제품 발표회에서 '올트라 올레드 TV'와 '슈퍼 올트라HD TV' 등 초고화질 TV를 론칭하며 브라질 시장 선두 수성에 나섰다. 사진제공 LG전자

삼성·LG '초고화질 TV' 해외 공략 본격화

삼성 SUHD TV, 中 가전박람회서 대상
LG, 브라질서 '슈퍼 올트라HD TV' 선포

국내 TV제조사들이 신제품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4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박람회센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에서 2015년형 'S UHD TV'로 중국가전협회 선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21:9 비율의 세계 최대 105인치 'S9W'와 다양한 SUHD TV 라인업을 선보였다. 올해 중국에서 'JS9900'과 같은 주력 모델을 중심으로 한 88·78·65·55인치 커

브드 SUHD TV와 65·55 인치 평면 SUHD TV 등 총 27개 UHD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보르본 이비라푸에라 호텔에서 2015년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선 '올트라 올레드 TV'와 '슈퍼 올트라HD TV' 등을 공개했다.

초고화질 TV 라인업을 전년 대비 50% 확대해 브라질 TV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올해 브라질에 3개 시리즈 4종의 올레드 TV를 출시하는데, 77·65·55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제품이다. 아울러 기존 LCD 기반의 올트라HD TV보다 색재현율을 높인 슈퍼 올트라HD TV도 내놓는다. 김명근 기자

렌틸콩 수입 33배 증가... '슈퍼곡물 전성시대'

귀리·퀴노아 등 항산화 성분에 단백질 풍부

웰빙열풍을 타고 치솟은 슈퍼곡물의 인기까지 줄을 모른다. 슈퍼곡물은 귀리, 퀴노아, 렌틸콩, 치아씨드, 병아리콩 등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을 갖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곡물을 말한다.

1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 1~2월 슈퍼곡물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2.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양곡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구성비도 3.8%에서 16.4%로 4배 이상 훌쩍 뛰었다. 이러한 경향은 씨리얼 시장에도 이어져 퀴노아와 렌틸콩이 들어간 뮤즐리(통곡물을 굽거나 건조, 압착시켜 만든 건강시리얼)는 3월 둘째 주 들어 매출이 전 주 대비 2.8배 증가했다. 퀴노아와 렌틸콩은 국내에 비교적 일찍이 소개된 슈퍼곡물로 높은 영양가치 덕분에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관세청이 공개한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렌틸콩 수입량은 2013년 366톤에서 2014년 1만2196톤으로 33배 급증했다. 2013년 12월에 불과하던 퀴노아 수입량 역시 지난해 111톤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오메가3와 식이섬유,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아

마씨, 치아씨

이마트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전국 점포에서 '슈퍼곡물 골라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1봉지에 8000원인 붉은레드퀴노아(350g), 치아씨드(350g), 렌틸콩(1kg), 병아리콩(1kg)을 3봉지 구매시 정상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1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렌틸콩 청국장, 치아씨드 건강 주스 등 슈퍼곡물을 활용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법도 매장 내에 고지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국내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슈퍼곡물이 대중적인 건강식의 하나로 자리잡아가면서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들도 잇달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 @ajaplo



퀴노아 ▶



리복 'Z 펌프 퓨전' 신고 점프!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이 'Z 펌프 런 챌린지' 이벤트를 1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보인 'Z 펌프 퓨전'은 리복의 대표기술로 꼽히는 펌프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러닝화다. 참가자들은 6가지의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Z 펌프 퓨전을 착용하고 미니허들을 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제공 리복

더 플라자, 내달 17일 '윤한&' 콘서트

더 플라자는 4월17일 저녁 7시부터 낭만적인 피아노 선율을 즐길 수 있는 2015스프링콘서트 '윤한&'를 그랜드 볼룸에서 단 하루 동안만 진행한다.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윤한(사진)은 클래식, 재즈, 국내외 OST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과 함께 호텔 수석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스페셜 디너 코스 메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가격은 골드 15만원, 실버 12만원. 예약 및 문의: 02-310-7780

롯데호텔서울 모모야마 '타이안 미식회'

롯데호텔서울 일식당 모모야마는 5년 연속 미술 랭 3스타를 획득한 오사카 최고의 레스토랑 타이안의 타카하타 히토시 셰프를 초청해 '타이안 미식회'를 개최한다. 4월1일 단 하루 50명 한정으로 저녁에만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7가지 코스로 구성된 오사카의 진미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중식당 도림에서는 중국 공영방송 CCTV의 인기프로그램 '만찬전서 요리대회'의 우승자인 탕시펑 셰프를 초청해 3월24일부터 27일까지 '만찬전서 미식회'를 진행한다. 문의: 롯데호텔서울 모모야마 02-317-7301, 도림 02-317-7101

KT '평창 패럴림픽 데이' 홍보부스 운영

KT는 14·15일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 '제1회 2018 평창 패럴림픽 데이'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평창 패럴림픽 데이는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올해 1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년 진행된다. KT는 패럴림픽 데이에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동계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부스를 꾸렸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